

# 개인의 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직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동은<sup>1</sup>, 이건창<sup>2\*</sup>

<sup>1</sup>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학생

<sup>2</sup>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교수

## Analyz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Competence on Employment: Emphasis on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Activities

Dong Eun Lee<sup>1</sup>, Kun Chang Lee<sup>2\*</sup>

<sup>1</sup>Student, SKK Business School,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wa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Health Sciences & Technology, SAIHST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직활동이 취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공데이터 약 731,852 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구조모형 분석을 한 결과 개인의 능력 요소 중 나이, 교육정도, 전공계열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남녀 모두 구직활동의 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취업의 질과 관련된 데이터와 연결하지 못하고, 2018년도의 특이점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실적 이혜를 반영한 구직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을 함의한다.

주제어 : 능력, 취업, 구직, 성별, 교육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individual Competence on job-seeking activities and employment. For the sake of empirical study, we have used microdata public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which is composed of 731,852 people. Empirical results were obtained by applying structured equation model with using job-seeking activities as a mediating variable. Results showed that those three variables such as age, level of education, and special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seeking activities and employment. Especially, we found practical implication that regardless of gender, it becomes likelier that individuals can find jobs when their job-seeking periods are shorter. Also, level of education has positive effects to employment. The limitation is that these results are not associated to data which has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at they do not reflect the uniqueness of 2018. In this sense, job-seeking support education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designed out of this implication.

Key Words : Competence, Employment, Job-seeking activities, Gender,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Kun Chang Lee(kunchanglee@gmail.com)

Received April 17, 2020

Revised August 10,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기술발달이 빨라지고 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및 학교와 협력하고 있다[1]. 대학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교육의 제공을 통해 융합형 인재육성을 도모한다. 융합형 인재란 지식과 생각의 다양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와 학교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2, 3]. 이로 인해 ICT 이외의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학계에서는 양적연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질적 및 혼합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4]. 이를 통해 학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혁신에 도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런 흐름은 뉴 노멀(New Normal) 개념의 등장과 연관된다. 뉴 노멀은 세계금융위기로 부터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에 발생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도 뉴 노멀에 해당된다[5]. 취업 시장에 변화를 준 것은 뉴 노멀 뿐만 아니라 Gig 경제(Gig Economy)도 있다. Gig 경제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장상황이다[6]. 예시로 우버(Uber)와 배달의 민족의 시스템이 Gig 경제에 해당된다. Gig 경제의 확장된 개념은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및 취업환경이다[7]. Gig 경제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의 존재이다.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받으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에 중재자로서 개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신뢰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Gig 경제로 인해 등장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기반이 더 필요하다[8]. 이는 개인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9].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성향으로 인해 인문계열을 전공한 청년들은 구직을 어려워한다[10]. 급부상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ICT분야의 공부는 인문계열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청년의 실업률은 11.5%에 도달했다[11]. 본 연구는 청년들의 개인능력에 따라 구직활동과 취업에 어떠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 또는 대학에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향에 대해 논한다.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Q 1. 개인의 능력이 구직활동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

RQ 2. 개인의 능력이 취업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

RQ 3. 구직활동이 취업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

RQ 4. 성별 간에 집단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개인능력

유동현 & 민현주(2012)는 예체능 계열의 졸업생들의 취업 가능성과 고용의 질은 낮으나 인문계열의 졸업생들보다 월평균 임금수준이 높음을 파악하였다[12]. 또한 공학계열의 졸업생들이 인문, 사회, 자연계열 졸업생보다 구직기간이 짧으며, 전공과 직무일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공을 개인능력 변수에 포함하여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프로젝트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에 있어서 Katz(1974)는 전문적, 인간관계, 개념화 기술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전문적인 지식과 팀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초적인 발판이 된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개념화 기술의 역량을 증대하는 것은 다음 단계이다[14]. 프로젝트의 완료 성과에 구성원의 개인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파악한 연구도 있다[15]. 해당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의 역량은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검증하였다. 관리자와 구성원의 역량은 프로젝트 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뿐이고, 프로젝트의 성공과는 음(-)적인 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개인능력을 취업 후 프로젝트의 성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취업과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공공 데이터 베이스의 한계로 인해 개인능력 변수를 교육정도, 나이, 전공계열로 선정하였다. 취업 후 임금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한계점도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인능력 변수가 실제 구직활동에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 2.2 구직활동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통해 보다 완벽한 정보를 얻고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16].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구직활동이 길어지게 된다. 구직활동기간과 취업사이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구직활동기간이 24주보다 길어지게 되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17]. 반대로 24주 이하일 때 정규직이나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이 존재한다. 청년들의 취업의지와 자신감은 자격증과 취업관련 경험을 근거로 발생한다. 또한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직활동이 가장 빠르고 더 높은 임금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방법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18].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직활동은 구직방법과 구직경로 2가지로 나뉘었다. 구직방법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시험응시, 구직등록(공공, 민간알선기관), 사업체문의(원서제출), 자영업 준비, 소개, 기타의 응답이 있다. 구직경로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 대중매체, 학교, 친구, 기타의 응답이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능력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각각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각 측정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19]. 모수 추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대 우도법을 이용하였다[20]. 연구모형은 Fig.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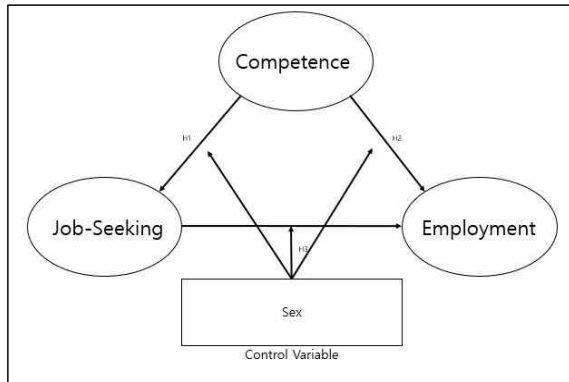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ing

### 2.3 취업 및 취업만족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학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1-23]. 해당 연구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 취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취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취업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취업만족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24].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취업달성

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만족도는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 할수록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25]. 해당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가치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에서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해 거쳐야하는 단계별로 주요회사들에 맞추어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두 번째 단계의 인적성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이다[16]. 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만족과는 부정적인 관계에 있지만[24], 대학생의 구직활동에는 큰 도움이 된다[17]. 특히 지속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16, 26]. 또한 성별에 따라 취업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는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한 결과이고[27], 이를 바탕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 3. 실증분석

### 3.1 데이터 자료

공공데이터는 빅 데이터의 관점에서 정부기관이 주관하여 만드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공데이터<sup>1)</sup>는 2018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731,852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인 전국의 3만 5천 가구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추출 되었다. 실업자 수의 연간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하였고, 매월 약 970가구를 연동표본 교체하고 있다. 조사는 매월진행하고,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대인 면접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 추출된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388,714명(53.1%), 여성이 343,138명(46.9%)으로 차이가 없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260,084명 (35.5%)으로 많았고 대졸 148,352명(20

1) 통계청 고용통계과에서 1963년도부터 조사와 작성을 실시하고,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URL : <https://mdis.kostat.go.kr>)

Table 1. Abstract Literature Review

Author	Key Theme	Considered Variables		
		Competence	Job Seeking	Employment
D. H. Yoo & H. J. Min. (2012)	[12] College Majors, the Outcomes, First Job	O	X	X
J. H. Lee, et al. (2016)	[3] Job Competence on Job-seeking	O	O	X
S. B. Lee, et al. (2016)	[15] Project Managers Leadership, Individual Competency, Performance	O	X	X
N. S. Jo. (2017)	[21] Korea Education	O	X	X
E. J. Lee. (2017)	[22] Korea Education	O	X	X
B. I. Seok & M. S. Han, (2019)	[23] Jobs	X	O	O
J. C. Lee, (2013)	[27] Education Satisfaction,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O	X	O
S. W. Kim, (2016)	[17] Job Seeking Types of Youth	X	O	X
M. Arbex, et al., (2019)	[18] Network Search in Labor Market	O	O	X
This Study	the Effect of Individual Competency on Employment and Job Seeking	O	O	O

Table 2. Characteristic of research subject

Category		Frequency
Sex	Male	388,714 (53.1%)
	Female	343,138 (46.9%)
Age Group	Under 20	44,884 (6.1%)
	20s	76,807 (10.5%)
	30s	102,477 (14%)
	40s	132,377 (18.1%)
	50s	141,650 (19.4%)
	60s	116,215 (15.9%)
	70 and over	117,442 (16%)
Educational Background	Under Elementary School	127,749 (17.5%)
	Middle School Graduation	101,755 (13.9%)
	High School Graduation	260,084 (35.5%)
	Technical College Graduation	70,566 (9.6%)
	University Graduation	148,352 (20.3%)
	Graduate School Graduation	23,346 (3.2%)

.3%), 초졸 이하 127,749명(17.5%), 초 대졸 70,566명 (9.6%), 대학원졸 23,346명(3.2%)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통계 분석을 사용해 주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구직활동과 관련된 설문문항 중 구직방법(주된 것)이 왜 도 8.585, 첨도 80.378 그리고 구직경로(주된 것)이 왜 도 9.190, 첨도 91.573으로 8을 초과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왜도 < |3|, 첨도 < |8|로 정규성 분포 조건을 만족하였다. 왜도의 절대 값은 3, 첨도의 절대 값이 10이하 면 정규성 분포 조건에 부합한다[28].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연구를 위해 동질성 검정 수행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 수준  $p < .001$ 을 만족하였다.

### 3.2 확인적 요인 분석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0.8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분산팽창요인은 최소 1.059에서 최대 3.239로 나와 10 이하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별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다중집단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98128.624$  ( $p < .001$ ), TLI = 0.892, CFI = 0.9221, RMSEA = .102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분석 결과는 Table 3. 에 보이듯이 남녀 모두 개인, 구직, 취업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001에서 모두 유의했다. 구직활동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측정하였고 0.893 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능력과 취업의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는 수치를 확인했다.

### 3.3 SEM 분석

본 연구는 성별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개인능력, 구직활동, 취업에 대한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파악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형은 Fig. 2에,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개인과 구직활동의 요인 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Q4). 남녀 모두 개인과 취업, 구직활동과 취업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했다.

즉, 개인의 능력이 높거나, 구직활동이 길어지면 취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RQ2, RQ3). 남성의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emale & Male)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Survey Question)	Estimate				Female		Male	
		Female		Male		S.E.	C.R.	S.E.	C.R.
		B	$\beta$	B	$\beta$				
Individual Competence	Economic Activity State	1	0.970	1	0.977				
	Level of Education	-0.393	-0.263	-0.480	-0.307	0.002	-170.154***	0.003	-188.926***
	Affiliation	-0.302	-0.179	-0.409	-0.197	0.003	-114.055***	0.003	-117.821***
	Age	3.119	0.160	0.714	0.035	0.031	101.185***	0.035	20.569***
Job-Seeking	Job-Seeking Periods	1	0.259	1	0.157				
	Job-Seeking Way	1.084	0.974	1.139	0.979	0.002	561.504***	0.002	558.600***
	Channel of Job-Seeking	1.015	0.895	1.095	0.973	0.002	557.862***	0.002	550.633***
Employment	Period of Employment	1	0.688	1	0.703				
	Working Hours	5.761	0.992	9.249	0.994	0.035	166.182***	0.100	92.611***
	Employment Last Week	1.902	0.947	3.196	0.956	0.012	165.049***	0.035	92.595***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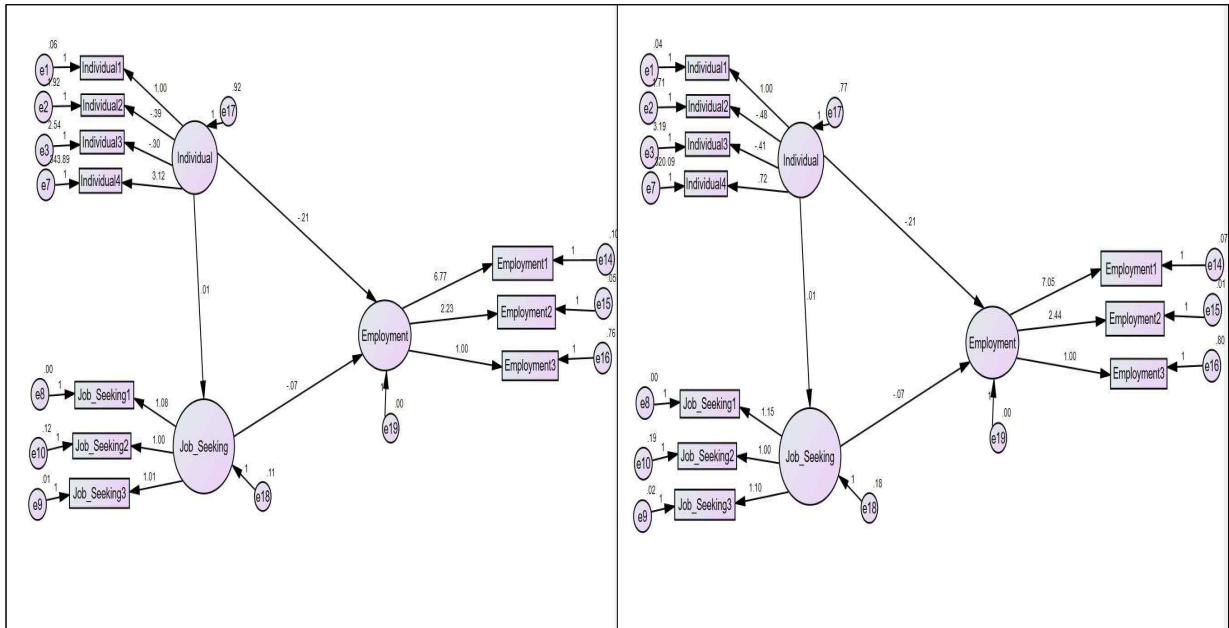


Fig. 2. Execution Result of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Gender Group(Left: Male, Right: Female)

Table 4. Path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Male & Female)

Path	Male		Female	
	$\beta$	C.R.	$\beta$	C.R.
Individual Competence → Job-Seeking	0.033	38.776***	0.000	0.131
Individual Competence → Employment	-0.161	-92.287***	-1.019	-164.033***
Job-Seeking → Employment	-0.051	-89.428***	-0.120	-142.662***

\* $p < .05$ , \*\* $p < .01$ , \*\*\* $p < .001$

경우 개인의 능력이 구직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RQ1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 3.4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을 통해 구직활동이 개인능력과 취업 사이에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Table 5. Mediating Effect Analysis (Female &amp; Male)

Path (Fema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Individual Competence -> Seeking Job	0.0000	0.0000	0.0000	-0.001 ~ 0.001
Individual Competence -> Employment	-0.248	-0.248	0.0000	-0.251 ~ -0.245
Seeking Job -> Employment	-0.085	-0.085	0.0000	-0.086 ~ -0.084
Path (Ma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Individual Competence -> Job-Seeking	0.033	0.033	0.0000	0.031 ~ 0.035
Individual Competence -> Employment	-0.162	-0.161	-0.002	-0.167 ~ -0.159
Job-Seeking -> Employment	-0.051	-0.051	0.0000	-0.052 ~ -0.050

\* $p < .05$ , \*\* $p < .01$ , \*\*\* $p < .001$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성 그룹은 구직활동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0167 ~ -0.245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존재하며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직활동은 ( $p < 0.05$ )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Table 6. Research Question Testing

	Contents	
RQ1	Is Individual Competence affecting Job-Seeking?	Positive
RQ2	Is Individual Competence affecting Employment?	Negative
RQ3	Is Job-Seeking affecting Employment?	Negative
RQ4	Is there difference between Gender ?	-

#### 4. 결론 및 논의

기술의 발달과 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대두됨에 따라 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고용시장의 환경을 맞이하여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되었다[29].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개인능력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후 구직활동이 개인능력과 취업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공공데이터,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남녀 731,85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RQ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에 요약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의 경우 개인능력이 구직활동에 양(+)

영향이 있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가 교육정도에 따라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녀 모두 개인능력과 구직활동은 취업에 음(-)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취업에 있어서 구직활동이 길어지면 높은 교육정도와 나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함의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구직활동의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직활동과 취업에 개인의 능력이 가지는 관계와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정도 이외의 요소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의지와 자신감을 높게 가지는 것이 학력이나 성적에 집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를 위해 자격증과 취업관련 경험에 집중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가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변화하는 취업시장에 적응하여 개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대졸 고학력의 취업난의 원인인 고학력자의 초과공급 및 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각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기 편하도록 돕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공만족도와 취업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개인의 전공에 맞는 취업관련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청년실업 및 대졸 고학력의 취업난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설문 조사의 의도를 자세히 답할 수 없었다. 이는 구조모형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비 식별화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취업의 질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매칭을 하지 못하여 취업 만족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런 한계점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과 질이 부족하기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30].

둘째, 2018년의 취업 특이성에 대한 해당 년도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8년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확정되었고,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비교하는 더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도별 분위기와 특이성을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마다 취업을 진행하는 단계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공기업일 경우에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 대학생들은 본인의 전공계열에 맞추어 기업에 지원을 하고 NCS, 면접 등에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사기업은 스펙중심 채용제도를 진행한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학력과 전공,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집중적으로 본다[31]. 이와 같이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다양한 방식에 따라 개인능력에 속하는 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 반영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K. T. Kim. (2019). Domestic Research Trends and Case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Oper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8), 15-26. DOI: 10.14400/JDC.2019.17.8.015
- [2] W. Y. Baek, J. M. Cho & Y. B. Kim. (2019). Convergence in Education and Employment of Engineering Students: Korean Evidence. *Inzinerine Ekonomika-Engineering Economics*, 30(1), 59-68 DOI: 10.5755/j01.ee.30.1.14306
- [3] J. H. Lee, S. K. Jin, & H. K. Shin. (2016). Establishing the Concept of ICT-Based Creative Talented Persons.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7(5), 141-150 DOI: 10.7472/jksii.2016.17.5.141
- [4] S. Y. Lee, K. H. Cho & K. K. Park. (2019).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35-42. DOI : 10.14400/JDC.2019.17.6.035
- [5] M N. Roger & D. David. (2004).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 New York : Portfolio, 135-138. ISBN-10: 1591840597
- [6] A. J. Wood, M. Graham, V. Lehdonvirta, & Hjorth, (2019). Good Gig, Bad Gig: Autonomy and Algorithmic Control in the Global Gig Econom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3(1), 56-75. DOI: 10.1177/0950017018785616
- [7] G. S. Choi & S. H. Kim. (2019). *Global Geek Economy Status and Implications*. Seoul : The Bank of Korea.
- [8] S. K. Park & B. G. Lee.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Future Job Recognition of Resource Provider in the Gig Economy.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9(1), 141-154. DOI: 10.7472/jksii.2018.19.1.141
- [9] J. Park,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dvanced Policy Series, pp.252-263, 2017
- [10] Y. K. Chung, M. S. Chang & H. J. Kim. (2011). Graduates Educated Labor Market Mismatch. *Ordo Economics Journal*, 14(3), 1-21.
- [11] KOSIS(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esearch, Over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Age), 2019.10.02.
- [12] D. H. Yoo & H. J. Min. (2012). College Majors and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a First Job among College Graduates: Focusing on th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Major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 27, 149-182.
- [13] W. Y. Kim. (2017). The Entry into the First Job and Job Satisfaction by University Major :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an Increase in Student Enrollment for Engineering Majors.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35(2), 113-142.
- [14] R. L. Katz. (1974). Skills of an Effective Administrator, *Harvard Business Review*, 52(5), 90-102.
- [15] S. B. Lee, J. M. Boo & S. C. Kim.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Project Managers Leadership on Participants Individual Competency and Project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5), 175-188(14 pages)
- [16] K. C. Han & H. S. Lee.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arch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3), 967-995.
- [17] S. W. Kim. (201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Job Seeking Types of Youth, *The Study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11(2), 35-54.
- [18] M. Arbex, D. O'Dea & D. Wiczer. (2019). Network Search: Climbing the Job Ladder Faste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60(2), 693-720.

- DOI: 10.1111/iere.12375
- [19] Y. J. Kim. (2016). Research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Ordinal Variables : Transformation and Bayesian Approach, *Ph. D.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 [20] Y. K. Bae, S. Y. Ahn & J. H. Chung. (2013). Analysis on Comparison of Highway Accident Severity between Weekday and Weeken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es*, 33(6), 2483-2491.  
DOI: 10.12652/Ksce.2013.33.6.2483
- [21] N. S. Jo.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Korea. *Education Review*, 39, 330-347.
- [22] E. J. Lee. (2017). Korean University Education at the inflection point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Call for transformation from knowledge discourse to education discourse. *The Journal of Humanities*, 38(2), 141-181.
- [23] B. I. Seok & M. S. Han. (2019).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Cre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cosystem and Jobs*.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Management Society Summer Conference, 479-491
- [24] J. C. Lee. (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upon Employment Satisfaction After Graduation: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ployment Goal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3), 77-96.
- [25] W. Y. Kim. (2017). The Entry into the First Job and Job Satisfaction by University Major :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an Increase in Student Enrollment for Engineering Majors.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35(2), 113-142.
- [26] J. H. Lee, H. Lee, M. G. Jang & S. I. Chang.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Job Competence on Job-seeking Attitude.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2), 87-93.
- [27] J. C. Lee & A. J. Hong. (2012). Exploring Factors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177-206.
- [28] R. B. Kline.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 Guilford Press.
- [29] S. J. Kim. (2017). The Impact of Korean Human Capital on the Permanent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ew Normal Era.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6), 55-62.  
DOI: 10.5392/JKCA.2017.17.06.055
- [30] S. O. Yoon & J. W. Hyun. (2019).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Public Data Open Policy.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3(1), 219-247.
- [31] J. C. Lee & J. G. Le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Spec-oriented recruitment, NCS based Recruitment, and Blind Recruitment -.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KABH)*, 33(4), 129-155.  
DOI: 10.22629/kabh.2018.33.4.006

## 이 동 은(Dong-Eu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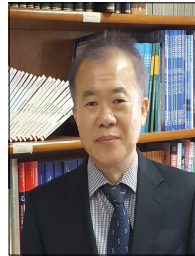
[학사회원]



- 2013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학석사과정
- 관심분야 : 경영정보, 공공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 E-Mail : leede93@gmail.com

## 이 건 창(Kun-Chang Lee)

[상위권]



- 1988년 8월 : 카이스트 경영과학과(공학박사-인공지능)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및 삼성융합의과학원 (SAIHST) 융합의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창의성과학, 인공지능, 헬스 인포매틱스, 감성분석 등
- E-Mail : kunchanglee@gmail.com